

제7기 대학평의위원회 제4회 회의록

- 일 시 : 2019. 8. 12.(월) 11:00 ~ 13:00
- 장 소 : 대학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종훈, 서은혜, 이재설, 이용노, 전봉권, 김현수
- 불참자 : 이희중, 유창희

※ 회의안건

- 2019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 자문

(전봉권 의원 기도)

의장: 간사께서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정수 11명 중에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대학평의위원회 제4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차회의록 보고)

의장: 그럼 오늘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2019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 자문입니다. 기획처장께서 2019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처장: (2019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 자료 상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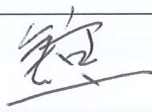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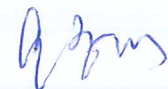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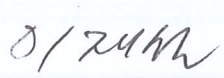
의장: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019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 자문

의장: 그러면, 오늘 회의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의 예산규모를 보면, 금번 교비회계 1차 추경액 약 180억원 중에서 등록금 회계 28억원, 비등록금 152억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계정과목 중에 「미사용전기이월」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목적이월 금액이 있나요?

기획처장: 목적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지출이 전년도에 되었어야 했는데, 미집행

| | | | | | | |
|-----|-----|---|-----|--|-----|---|
| 간서명 | 김종훈 |  | 서은혜 |  | 이재설 |  |
|-----|-----|---|-----|--|-----|---|

된 부분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전년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사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한 금액들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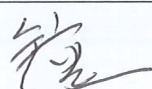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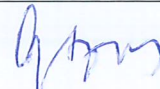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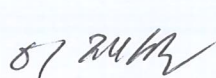
기획예산실장: (미사용전기이월에 대한 내용들을 페이지별로 상세히 설명)

의장: 보통 매년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처장: 작년 추경 최종금액은 1,460억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1차 추경기준으로 1,470억 수준이므로 현재기준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차후 회의에서는 전년도 동기간 비교표를 첨부하여 회의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학생 유치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처장: 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금규모가 경직되는 이유로는 입학정원의 감소 때문입니다. 4개 학년 재학생 기준 약 1,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약 72억원의 감소폭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유치목표는 국제학생 800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3년 후) 40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형적으로는 2014학년도 재학생 인원으로 복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 창출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과거 2014학년도의 수준을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에 해외 유학생을 모집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국내 입학자원의 감소가 우리가 맞닥드린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학부 입학생이 내년에 7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학처에서는 예년과 같이 100% 신입학 충원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2년후에도 7만여명의 입학자원 감소가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틀 뒤, 정부에서 대학혁신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로 첫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대학의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 둘째는 대학들에게 강제적인 정원 감축을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대학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그 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던 대학혁신사업(리빙랩 프로젝트)이 정부의 방침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 | | | | | | |
|-----|-----|---|-----|--|-----|---|
| 간서명 | 김종훈 |  | 서은혜 |  | 이재설 |  |
|-----|-----|---|-----|--|-----|---|

4: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간소화 되면, 교원충원율은 지표에서 빠지는 것인가요?

기획처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 충원율(신입학, 재학생)이 교원 충원율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 충원율이 높아지면, 결국 교원 충원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교육부에서도 결국 교원 충원율의 지표도 함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법과 교원충원율 항목에서도 교육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강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대학교는 시간강사 비율이 몇 % 감소했나요?

기획처장: 정부에서는 비전임교원들 중에서 시간강사들의 비율감소 폭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교무처에서도 시간강사들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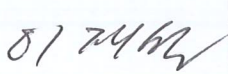
6: 시간강사비율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해당 대학에 감점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요?

기획처장: 제가 알기로, 15%이상 감소할 경우, 대학재정지원에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대학은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 대학평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강사료에 대한 군산대 91,000원, 전북대 88,000원, 원광대 약 55,000원 내외, 우리대학은 55,000원입니다. 동일 지역내의 다른 국립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강사분들의 노고에 성의를 표하는 수준으로라도 강의료를 상향하는 것은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액수를 말씀드리자면, 7만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6만원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의장: 혹시 기획처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처장: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료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부의 국립대에 대한 재정규모들을 감안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대학이 지급하는 55,000원의 산정 근거는 전국 사립대학의 시간강사료 평균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시간강의료 격차로 인해, 실제로 지방의 사립대 교수님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국립대 시간강사 출장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 | | | | | | |
|-----|-----|---|-----|--|-----|---|
| 간서명 | 김종훈 |  | 서은혜 |  | 이재설 |  |
|-----|-----|---|-----|--|-----|---|

리한 배경에는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가 사립대학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물론 재정적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저의 의견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철학 등 보다 더 큰 가치를 감안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몇 천원이 라도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의장: 네. 000의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 오늘의 안건은 교비회계 추경(안)이기 때문에 본 안건이 끝나고 난 후, 기타 안건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의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혁신 투게더 프로그램을 여러 학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성화사업을 수주해서 학과들에게 예산을 분배하는 것인가요?

기획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수주해서 특성화 개념으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특성화학과를 17개학과를 지원하라는 것이 큰 틀입니다. 해당 학과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예를들면, 선후배 코칭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적 지원 개념입니다.

10: 본 추경안이 만약 공개가 되었을 때, 학과별 지원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해당 학과들의 불만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학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모든 학과들에 공개하고, 각 학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 기획처장님 말씀처럼 학과에서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 다.

12: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그러면, 이것으로 교비회계 1차 추경(금18,001,894천원 증액된 금147,095,950천원)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의견 없습니다)

의장: 네. 그럼 예산편성 추경(안)은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기타의견으로 000의원

| | | | | | | |
|-----|-----|---|-----|--|-----|---|
| 간서명 | 김중훈 |  | 서은혜 |  | 이재설 |  |
|-----|-----|---|-----|--|-----|---|

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0년 최저임금이 정부에서 공포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하셨는지 기획처장님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처장: 작년 결산기준 등록금 회계 상 인건비 비율이 65% 였습니다. 한편, 70% 수준이 된다면,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희도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65%에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응책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무처, 교무처에서 직원, 조교, 교원의 적정수준도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정년계열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사항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14: 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당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분에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또한 대학에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처장: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용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은혜 의원님께서 간서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15: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그럼 이것으로 대학평의원회 제4회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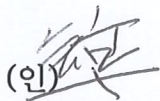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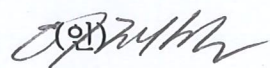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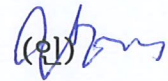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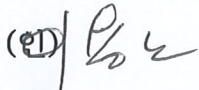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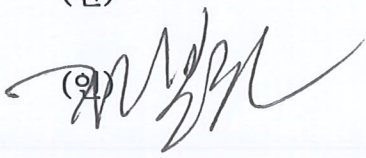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 | | | | | | |
|-----|-----|---|-----|--|-----|---|
| 간서명 | 김종훈 |  | 서은혜 |  | 이재설 |  |
|-----|-----|---|-----|--|-----|---|

2019. 8. 12.

위의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 | | |
|-------|-------|---|
| 의 장 | 김 종 훈 | (인)  |
| 부 의 장 | 이 재 설 | (인)  |
| 의 원 | 서 은 혜 | (인)  |
| 의 원 | 이 희 중 | (인) |
| 의 원 | 이 용 노 | (인)  |
| 의 원 | 김 현 수 | (인)  |
| 의 원 | 유 창 희 | (인) |
| 의 원 | 전 봉 권 | (인)  |